

학생에게 맞은 선생님의 깊은 뜻

함석헌 선생이 교육을 통해 민족의 새로운 길을 펼치고자 일본 유학을 다녀와 모교인 오산학교에 재직하면서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던 때의 일이다.

하루는 동료 직원 중에 중학생들로부터 문제 교사로 지목받는 분이 있어 학생들이 교무실로 쳐들어왔다. 다른 교사들은 모두 도망을 갔는데도 오직 선생님만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저 선생의 자리로 보아 문제 교사임에 틀림없다.”

학생들은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선생님을 마구 때렸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함 선생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학생들은 물려와 용서를 빌면서 말했다.

“선생님은 왜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재치와 유머있는 말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만일 눈을 뜨고 매를 맞았다면 내 제자들 가운데 누가 나를 때린 것을 알게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고, 나를 때린 제자들도 어떻게 나를 다시 보겠는가?”